

더불어 보도자료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5.02.13.(목)

오세희 의원실 02)784-0496~7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안 간담회 개최

-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 및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오세희 위원장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할 것”

2025년 2월 13일 (목)

13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선진화를 위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 및 부위원장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민주당 간사,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 의원인 전용기·염태영·안태준 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회장, 한황렬 이사와 지역 지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11만 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협회와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회장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는 많지만, 권한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면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중요성과 「공인중개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한황렬 이사는 “임의단체는 부동산 시장 질서 위반에 따른 자율적 정화의 한계가 존재”

한다며 “법정 단체 전환을 통해 불법 중개업자를 막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필성 부회장은 “임차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리금 계약을 중개대상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김용은 특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임대차 갱신 계약 및 연장 계약을 규정하는 것이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간 직역 간 마찰을 예방하고, 전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말했다.

현안을 청취한 국토교통부 김동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안들은 공감과 우려가 모두 존재한다” 며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대표의원들은 공인중개사 현안 해결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진석 민주당 국토위 간사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국토위 소속 의원님들과 공인중개사 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공인중개사 현안을 해결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국토부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겠다” 고 말했고, 안태준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권리가 보장될 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8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 의원과 함께 ‘대형게임사들 이대로 괜찮은가’ 를 주제로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끝/.